뜨락 N

17호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신문 2021.02.06

GAFL 경기외국어고등학교
Gyeonggi Academy of Foreign Languages

발행처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기 획 : 지도교사 이기찬, 부장 박은지, 최수민
취 재 : 박은지, 최수민 외 12인
편 집 : 박은지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105번길30(고천동)
전화번호 : 031-361-0500
팩스번호 : 031-361-0598

Contents

2 선생님 인터뷰
4 2020 경기외고온라인 설명회
우리나라를 덮친 코로나-19 : 과연 경기외고의 모습은?
5 2020 일본어 노래 부르기 대회
6월의 꽃, 앵클브레이커즈 배와 올스타즈 배
6 경기외고 유일무이 영어 토론 대회, GADC
공연동아리의 혁명, 더 레볼루션(THE REVOLUTION)을 만나다!
7 경기외고의 춤신춤왕, 스틸로를 만나다!
8 앙케이트
12 교육계의 모순적인 사건, 스쿨 미투
코로나로 지친 마음 위로해준 경기외고 할로윈 파티
13 넷플릭스 '공짜망' 논란, 더욱 중요한 건 그들의 태도
국내 휘발윳값 11주 째 연속 하락세
14 사과데이,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다!
독감 예방 접종 : 과연 그 진실은?
15 양날의 칼, 공수처 설치
작은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16 파일럿, 하늘을 사랑하라
검은 시위, 폴란드의 낙태 반대
17 인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다
태국 민주화 운동
18 부드러운 개입, '넛지'와 마스크 정책
2020 미국 대선과 미국 연방제의 실효성
19 국제 사회의 환경 외교 : 지구,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은 건가?
20 솟기 시작한 '해' : 조지 플로이드 사건
21 보름간의 의사 파업이 남긴 유산
22 유튜브 휩쓴 '뒷광고' 논란…..이대로 괜찮은가?
23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

GAFL, A World Class Institution

경기외고의 작은 거인, 강신혜 선생님을 만나다!

올해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생활과 윤리 교과목의 강신혜 선생님. 평소에는 장난기 넘치시는 모습으로 학생들을 친근하게 대해주시지만 수업이 시작하면 멋진 목소리로 흡인력 있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학교의 작은 거인 '강신혜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Q1. 경기외고에 처음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경기외고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A. 일반 사립 남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경기외고에서 사회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오게 되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학교에서 공작을 키우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뒷산에서 다른 꽃도 아닌 양귀비를 키우는 것 역시 새로웠어요. 그리고 급식이 맛있고 매점도 좋아요!

Q2. 경기외고에 들어올 때 면접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특별한 면접 일화 있으신가요?

A. 면접 볼 때 네 분이 계셨는데 영어 논문을 쓰시고 대학원을 두 개씩 다니셨던 분도 계시는 등 스펙이 다들 정말 대단하셔서 사실 거의 포기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질문에 다섯 글자 정도로 답변을 다 끝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점은요?" "우유부단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집중 이수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답변을 잘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생각해요.

Q3. '윤리교육과'라는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A. 아버지가 철학과이셨고 어릴 때부터 철학 관련 책을 좋아했어요. 철학적인 이야기를 밥을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그만두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철학이 떠올랐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합쳐져서 윤리교육과를 선택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도덕 철학인 윤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Q3. 선생님께서 전공하신 윤리와 사상 과목이 현재 2학년에 개설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너무 속상하죠. 개인적으론 윤리와 사상을 배우고 나서 생활과 윤리를 배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생활과 윤리만 배우면 학생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윤리와 사상을 통해서 철학자들에 대해 더 넓은 범위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수능을 볼 때도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Q5. 경기외고에서의 첫 수업이 온라인이었는데, 이를 위해 특히 노력했던 점이 있으신가요?

A. 온라인 수업을 위해 아이패드 기기를 사서 연습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고3이라 동생을 앞에 앉게 하고 수업 연습을 하기도 했고... 정말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ㅎㅎ

Q6. 경기외고 학생들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정말 착해요. 제가 있었던 학교 아이들 중 가장 착한 것 같아요. 특히 잘 화해하려는 시도도 돋보이고요. 학생과 선생님 간의 선도 절대 넘지 않고 그 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참 온화하다고 생각했어요.

Q7. 마지막으로, 특별히 힘든 한 해를 보낸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지금 코로나로 힘들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바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공부보다 학교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항상 청결 유지하고 코로나 조심해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에서 만나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나라는 존재를 잊어도 되지만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늘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해요

▶ 양시연 기자, 이시현 기자

가플리안으로 들어서는 길, 입학홍보부의 최예은 선생님

Q1. 경기외고의 입학홍보부는 어떤 부서이고,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A. 입학홍보부는 경기외고의 신입학전형을 담당하고, 학교의 장점과 특색을 중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부서에요. 그리고 저는 입학홍보부에서 기획선생님으로 입학설명회와 신입학전형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Q2. 입학홍보부를 맡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기도 했고, 담임을 5년 연속으로 하다보니 감정적으로 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Q3. 입학홍보부의 업무와 과목 수업을 병행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특별히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A. 음... (웃음) 사실 설명회가 있는 주간은 정말 바쁘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부서 업무는 회사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감하기 직전처럼 더욱 바빠지는데,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이 되어야하니 힘들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처음이다보니, 설명회에 필요한 새로운 틀을 짜는 것부터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했고, 실수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Q4. 말씀대로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전반적인 홍보에 있어서는 경기외고에 대한 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신입학 전형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온라인을 통한 홍보여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야 했기에 신경썼던 부분은 '정보전달에 있어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구성과 디자인, 경기외고에 직접 방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외고를 현장감있게 담는 영상제작. 온라인 가인멘토링을 통한 개별적인 상담진행'이었어요.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예비 신입생들을 이끌며 입학의 첫 관문을 담당하는 입학홍보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계신 '최예은 선생님'을 만나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경기외고의 입학홍보부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Q5.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면설명회는 많으면 1000명 이상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다보니 설명회를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순간을 놓치면 다시 들을 수 없잖아요. 온라인 홍보 영상은 원하는 만큼 여러 번, 필요한 부분만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반면에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겠죠.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어도 실제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의 장단점은… 사실 온라인 설명회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웃음) 한번 올라간 영상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을 기해야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나 실시간 스트리밍의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었기에 사전에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했고, 실제로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음향, 화면전환, 발표자의 이동 동선 등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서 어려웠어요. 마치 하나의 방송국을 운영하는 듯 한 느낌이었는데 인원이 적어서 피디, 작가, 진행자, 엔지니어를 동시에 하는 느낌?ㅋㅋㅋ 그러나 한 번 만들어놓은 영상은 정말이지 뿌듯하더라고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Q6.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외고 입학 전형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A. 2차 서류제출에서 생기부 제출이 없어진 것과 코로나로 인해 오랜시간 많은 인원이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면접에서 공통 문항이 사라진 것이 변화된 부분이에요.

Q7. 마지막으로 입학홍보부 선생님으로서, 미래 신입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경기외고의 장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입학홍보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경기외고의 선생님으로서 '경기외고는 선생님이 다시 중학생이 된다면 꼭 입학하고 싶은 고등학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기외고를 다니는 동안 학업과 환경에서 받는 어려움은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경기외고에서 더 강해지고 단단해질 거예요. 이 과정에 있어서는 혼자 겪는 것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멋지게 성장할 자신을 기대하며 경기외고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은지 기자, 양시연 기자, 이시현 기자

2020 경기외고 온라인 설명회

2020년 6월 25일에는 경기외고 1차 온라인 설명회, 9월 17일에는 2차 온라인 설명회가 경기외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열렸다. 6월 설명회의 경우, 입학홍보부 선생님들과 함께 16기 가인 부장단 3명의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약 50분 동안 진행하였다. 학교 방송실에 새로 설치한 장비들과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사람과 화면이 동시에 보이는 식으로 즉, 뒤에 자료를 띄우고 양 옆에 서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였다.

가인 부장단 학생들이 학생의 시점으로 학교의 행사들을 소개하였다. 이중에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심화연구활동, 융합연구활동, 다양한 ASG, 동아리와 공연, 축제, 행사, GAPT와 학생회 활동 등이 있다. 가인 부장 16기 김수림 학생은 "가인 부장단이 3명이기에 두 명씩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였고, 대면식으로 진행하지 않아 시각자료를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설명회 자료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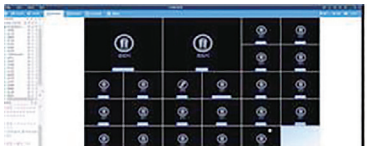
9월 온라인 설명회는 녹화본을 약 50분 정도의 영상 하나로 합쳐서 업로드 식으로 진행되었고 가인 부장단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설명회를 준비하였다. 9월 설명회의 컨셉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top7으로 평소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을 토대로 준비했다. 온라인수업, 기숙사, 학교 건물, GVT, 체육대회, IB, 축제(가플리에스타) 로 구성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강의식이 아닌 미리 영상을 제작한 후,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행했다. IB, GVT, 체육대회는 작년에 제작된 영상으로 대체하였고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께서, 가플리에스타와 기숙사, 학교투어는 새로 제작했다. 특히 학교투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사용하였고, 기숙사 영상은 영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인 부장 16기 김수림 학생은 "확실히 기존에 진행했던 설명회와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일정과 다르게 2학년 세명이서 하다 보니 더욱 그 부담이 컸던 거 같다. 짧은 시간안에 준비해야 했기에 다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막상 설명회가 끝나고 우리가 만든 설명회를 보고 힘을 얻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뿌듯했고 들려오는 후기나 꿈을 갖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참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라며 온라인 설명회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대면 설명회가 아닌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이 되었으나 입학 홍보부 선생님들과 가인 부장단 학생들의 노력 덕분에 대면 설명회 못지않은 온라인 설명회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영상들은 경기외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외고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오수빈 기자

우리나라를 덮친 코로나-19 : 과연 경기외고의 모습은?



2019년 12월 중순경 중국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급속도로 중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 기세를 몰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는 한국에서도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때문에 원래 계획에 있던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되었다. 예정대로라면 3월 2일부터 학교를 다녀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중간중간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학교를 들어가는 날짜는 계속 연기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기외고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도입하여 기존 학사일정과 최대한 비슷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경기외고의 인터넷 강의는 다른 학교와는 색다른 면이 있었다. 처음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할 때 많은 학교들은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경기외고는 처음부터 쌍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학생들은 선생님께 바로바로 모르는 점을 질문할 수 있었다. 또한 쌍방향으로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여도 zoom과 같은 대중화된 원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지만 경기외고는 school net, ezview와 같은 사이트에서 경기외고만의 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한번에 많은 학생들이 사이트에 접속하다 보니 끊김 현상도 심하고 서버가 많이 불안정하여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며 서버는 조금씩 안정되었고 수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확실히 인터넷 강의의 한계는 존재한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집중하여 참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하였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시는 부분을 열심히 보고 필기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 하다 보니 작은 화면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힘들고 끊김 현상도 있어 필기를 놓치거나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편한 상태로 수업에 임할 수 있다 보니 오히려 더 열심히 수업에 임하였다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들의 기능과 사용법을 익히는데 판서나 여러가지 기능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고 하셨다.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방법도 없고, 서로 배워가며 성장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진도도 많이 나갈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좋기는 하였으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과 만나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셨다. 이렇듯 인터넷 강의에는 장단점도 확실하고 사람들마다 인터넷 강의에 대한 생각이 다양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학교 일정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17기를 위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 해야 할 것들에 대한 OT도 진행하였다. 이처럼 수업뿐만 아니라 꽤 많은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수업 및 비교과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경기외고 학생들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온라인 강의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 박세윤 기자

2020 일본어 노래 부르기 대회

지난 6월 25일 목요일 ASG1부터 다목적실2에서 2020년 일본어 노래 부르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최대 2인까지 한 조로 일본어 노래를 1절 혹은 전곡 상관없이 참가자 자유로 할 수 있었다.

일본어 노래 부르기 대회는 과와 학년에 상관없이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었던 행사로 다목적실 1에서 진행되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다목적실 2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회를 관람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친구들을 응원하러 온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올해 심사의원 분들 중 한 분이셨던 정혜윤 선생님께서는 "일본어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하고 듣기 말하기능력을 신장시켜 일본어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동기 유발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한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수를 능가하는 수준의 훌륭한 가창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여 수준높게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참가하기 바라며 다른 과 학생들도 본인의 학과 언어뿐만 아니라 타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가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올해 일본어 대회를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셨다.

올해 수상자로 대상은 'なんでもないや'라는 노래를 부른 17기 성지윤 학생, 금상은 'さくらんぼ'라는 곡을 부른 16기 이정우 학생과 장민주 학생, 은상은 애니메이션 나루토 OST인 '실루엣'을 부른 15기 박지민 학생과 김지윤 학생, 동상은 '따뜻하니까'를 부른 17기 조해인 학생과 김수민 학생이었다. 이번 일본어 노래 부르기 대회는 학생들이 각자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통해 일본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동시에 대회에 참가하는 서로를 응원하며 훈훈한 추억도 쌓을 수 있었던 대회였다.

▶ 오수빈 기자

6월의 꽃, 앵클브레이커즈 배와 올스타즈 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의 많은 행사들이 취소된 가운데 경기외고 학생들이 모두 등교를 마치고 올스타즈 배 축구 대회와 앵클 브레이커즈 배 농구 대회가 개최되었다. 1차 지필고사가 끝난 후이기에 두 대회는 경기외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올스타즈 배는 6월 29일 영중과와 영일과, 중어과와 일어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3일동안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날 두 경기의 결과로 영중과와 일어과의 결승전이 결정되었고, 최종 우승은 6:2의 결과로 영중과가 가져갔다.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주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던 행사가 되었다. 올스타즈 배에 선수로 참가한 김세훈 학생은 "1,2,3학년이 모두 함께 출전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긴장이 안됐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미 다 잘하시는 걸 알아서 팀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 영중이 결승전에서 이겼을 때 선배님들과 함께 뛰며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했기에 더욱 값지고 의미 있었습니다." 라며 경기소감을 전했다. 특히 17기 선수로 뛰었던 올스타즈 영중과 선수들은 "마지막 결승전에서 15기 선배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라고 하며 감사함을 표했다.

올스타즈 배를 이어 7월 6일 앵클 브레이커즈 배 농구 대회가 개최되었다. 경기방식은 올스타즈와 같았다. 경기 첫 날이었던 7월 6일은 영중과와 중어과, 영일과와 일어과의 대결이었다. 경기 도중 점수가 뒤집히기를 반복하고 선수들의 환호와 탄식이 엇갈리면서 경기를 관람하던 관중들도 경기에 깊게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첫날 경기는 영중과와 일어과의 승리로 두 팀 선수들은 결승전에 출전하게 되었다. 다음날 진행 된 결승전은 그야말로 일어과의 역전승이었다. 경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26:24의 점수로 앞서가던 영중과는 일어과의 연속 득점으로 결승전에서 아쉽게 우승을 내주었다. 두 팀 선수 모두 경기에 최선을 다했던 만큼 승리의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학교의 많은 행사들이 취소된 가운데 올스타즈 배와 앵클브레이커즈 배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7기 학생들이 경기외고만의 열정과 단합을 직접 실감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 박주은 기자

경기외고 유일무이 영어 토론 대회, GADC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학교 일정에 착오가 생기면서 학교 대회 또한 타격을 받았다. 악조건에서 대회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Gyeonggi Academy Debate Competition (GADC) 개최 동아리인 AGORA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상 기회를 주고자 대회를 열었다. AGORA는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대회 개최일을 확정 지으면서, 7월 9일과 10일에 예선과 본선을 펼치게 되었다.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준비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GORA의 노력 끝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회를 할 수 있었다.

GADC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있으며, 예선에서는 즉석 토론과 준비 토론을 하고, 후에는 예선 점수를 집결하여 상위 4팀이 본선을 하여 성과에 따라 대상과 금상을 받는 형식으로 대회는 이루어 졌다. 올해 GADC에는 총 13팀이 참가했지만, 개인사정의 문제로 빠진 팀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팀이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다. 11팀은 치열하게 예선을 치른 뒤, 상위 4팀이 본선을 하였다. 본선에서는 THBT representative democracies with large numbers of foreigners living in their territory (on temporary or permanent basis) should create specific seats to represent them in parliament로 본선을 펼쳤으며, 각각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게 된 팀은 1학년으로 구성된 '체크메이트' 팀과 2학년으로 구성된 '조커'팀이다.

GADC가 성공적인 마무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최 동아리인 AGORA의 부장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4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줄어진 점, 완벽한 GADC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든 참가 인원들이 최선을 다해 GADC에 임해 주어 대회를 순탄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고, 다양한 지식과 토론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여 GADC는 더 풍부하고, 좋은 대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고 AGORA 부장단은 전했다. 반면, GADC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영어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자신의 영어 회화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이 있는 학생들과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대회를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심사해주신 3학년과 2학년 AGORA 부원들,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GADC는 내년을 기약했다.

▲ 임지예 기자

공연동아리의 혁명, 더 레볼루션(THE REVOLUTION)을 만나다!

15기의 주도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연동아리 '더 레볼루션'. EDM 음악으로 가플리에스타 분위기를 담당하는 특별한 공연 동아리의 16기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Q.1. 더 레볼루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다른 공연동아리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더 레볼루션은 경기외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댄스파티 때, 무대에 서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경기외고 유일무이 EDM 동아리입니다. 차별화된 점을 꼽자면, EDM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무대 음악으로 공연을 한다는 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 동아리이지만 같이 축제를 이끌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는 공연을 주도하긴 하지만 학생들과 어우러져서 공연을 함께 즐기는 동아리입니다.

Q2.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아리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나요?

A. 15기 선배님들이 먼저 생각을 하셨고 이후 16기가 합류했어요. 15기 선배님들이 가플리에스타 댄스파티 때 노래만 틀어져 있고 따로 떨어져서 각자 춤만 추는 분위기가 아쉬워서 '다같이 무대를 즐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원래 EDM에 관심이 많아서 'EDM으로 같이 무대를 하면 댄스파티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EDM 동아리를 개설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Q3. 동아리 구성원들도 다른 공연 동아리들과는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디제이, 보컬, 매니저, 홍보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제이는 무대에서 보다시피런치패드를 연주하며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해요. 보컬은 런치패드 연주나 EDM MR에 맞춰서 같이 노래하고 옆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역할이에요. 아무래도 다른 동아리와 다른 점은 매니저와 홍보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동아리에서는 매니저들이 홍보를 담당지만 저희 매니저들은 무대를 매니지한다는 느낌으로 무대에서 MR에 맞춰 신나게 뛰어노는 역할이고요, 보통 다른 동아리의 매니저가 하는 홍보는 홍보부가 담당하고 있어요.

Q4. 특별한 공연을 담당하는 동아리인만큼, 동아리에서 선호하는 부원상이 있나요?

A. 저희는 함께 뛰어놀고 공연을 주도해서 다른 학생들을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해요. 그렇다보니 밝은 친구들, 미친듯이 뛰어놀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즐기지 못하는 친구들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친구들을 선호해요.

Q5. 아직 공연을 경험하지 못한 17기들을 위한 작년 공연 방식 소개와 올해 공연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작년에는 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강당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다같이 한시간 동안 즐기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해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 보니 작년 댄스파티처럼 몸을 부딪히면서 즐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ㅜㅜ 그럼에도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Q6. 코로나 19로 인해 있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A. 연습을 같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이 힘들었어요. 무대에서 다 같이 신나게 어울려야 해서 동아리 내의 단합이 중요하거든요. 연습도 다같이 할 수 있길 바랐지만 모이기가 어려웠고 회식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도 막막했어요. 특히 이번 가플리에스타의 진행 여부를 몰라 막연한 상태였던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Q7. 더 레볼루션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A. 더 레볼루션은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여러분,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와 동참하시겠습니까?

▶ 양시연 기자, 이시현 기자

경기외고의 춤신춤왕, 스틸로를 만나다!

경기외고를 대표하는 동아리, 유일무이 댄스 동아리, 축제 때마다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최고의 공연 동아리, 스틸로의 16기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1. 먼저 스틸로가 어떤 동아리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스틸로는 경기외고의 유일무이한 댄스 동아입니다. 공연 동아리 중 춤을 추는 동아리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Q2. '스틸로'라는 동아리 이름의 유래가 있나요?

A. 사실 동아리 이름의 유래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름의 유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대대로 없는 것 같아요 ㅎㅎ; 근데 저희가 공연을 할 때 항상 "Steal Your Heart"라는 구호를 쓰는데, "스틸로"와 이 구호가 어감이 비슷해서,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Q3. 스틸로 댄서를 뽑는 기준이 있나요?

A.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원래는 지원자들에게 지정곡을 줬어요. 지정곡으로 심사하게 되면 모든 지원자가 같은 춤을 추기 때문에, 원곡의 느낌과 자신만의 개성을 얼마나 잘 살리는지 볼 수 있거든요. 자유곡 심사도 하는데, 자유곡 같은 경우에는 춤을 출 때에 필요한 기본기들, 박자, 그리고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는 동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봐요.

Q4. 코로나 19로, 17기는 온라인 면접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셨나요?

A. 온라인 면접은 동영상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지원자의 표정과 같은 디테일한 요소들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상 속에서 힘이 많이 들어갈수록 장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춤에 있어서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추는지를 보았어요.

Q5. 코로나 19로 인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A. 한 가지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웃음)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한 것처럼 온라인 면접이 너무나도 큰 제약이었어요. 애당초 계획은 온라인으로 면접을 먼저 보고, 대면 개학을 하면 더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도 할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개학을 하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 같아요. 또, 춤 동아리이다 보니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아직까지도 연습을 한 번도 못해보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동아리 분위기나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17기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공연을 못했다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아쉬웠고요.

Q6. 공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학교가 공연에 있어서 아주 발달이 잘 된 학교라고 생각해요. 공연 동아리에 대해서 부원들이 가지는 자부심도 크고, 연습 시간, 공연 시간도 행정 측과의 논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배하고 운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중지 상태로 돌아가고, 공연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아쉬워요. 저희 동아리는 물론이고 다른 동아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태 때문에 전체적인 공연 동아리의 의미가 사라지고, 아직 17기 친구들은 그런 재밌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요.

Q7. 춤 동아리이다 보니,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이 많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과 자습이 겹치면 배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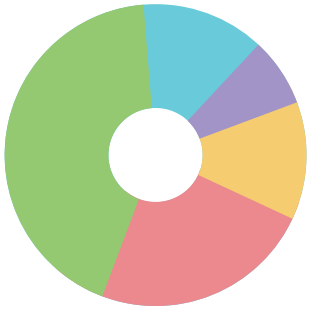
A.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도 있지만, 순간순간에 집중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된다고 생각해요. 공연동아리에서의 활동과 내 학업 활동을 분리해서 생각하여 춤 출 때에는 춤에만, 공부할 때에는 공부에만 온 신경을 쏟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공연동아리에서의 활동이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도 주는 것 같아요. 스틸로에서 춤을 추면서 체력도 다져지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해서,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Q8. 마지막으로 스틸로에 대해 한 마디 해주세요.

A. 조금 오글거리지만…ㅎㅎ 스틸로는 학교에서 하나의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웃음) 다같이 모여서 노래를 정하고, 몸을 다 쓰면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또 춤 추는 것 외에도 서로서로 같이 모여 타협하고 의논하는 것에 있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에너지 자체라고 생각해요!

▶ 민지홍 기자, 양시연 기자, 이시현 기자

가플리안들의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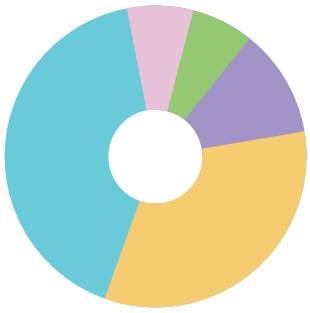


1.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한 일 중 가장 재미있었던 혹은 기억에 남는 것은?

경기외고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기숙사 학교라는 점이다. 기숙사는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제2의 집 같은 공간이며 룸메이트들은 힘든 학교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제2의 가족 같은 존재이다. 그렇다면 경기외고 학생들이 룸메이트들과 함께 한 일 중 가장 재미있었던 혹은 기억에 남았던 추억은 무엇일까? 설문조사 결과, 룸메이트들과 밤새 딥토킹 하기가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는 몰래 과자파티하기, 영화 및 드라마 보기가 각각 2,3위를 차지하였고 침자하기가 4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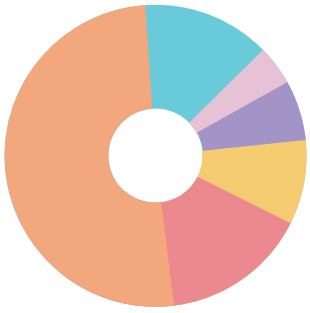
2. 학교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일탈은?

경기외고는 기숙사 학교의 특성상 학교에 있는 동안 학교 밖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규율이 더욱 엄격해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일탈은 무엇일까? 배달 음식 시켜 먹기가 1위를 차지하였고 학교 밖으로 탈출해보기가 2위, 담 넘어 보기가 3위를 차지하였다.



3. 1학기에 가장 후회되는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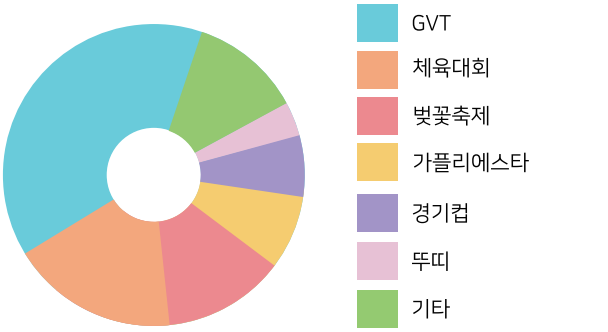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대하여 새학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일상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되어 목표를 이루지 못한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낮은 성적이 1위를 차지하였고 적었던 공부량이 2위, 힘들었던 친구관계와 동아리 선택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



4. 자습할 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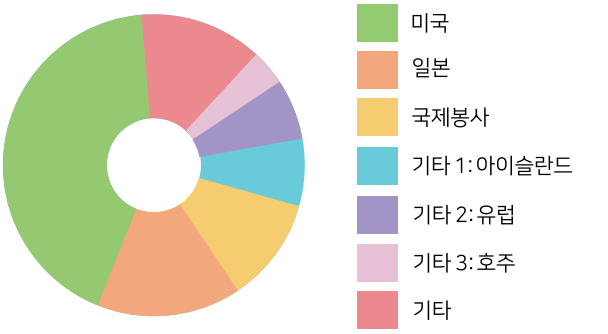
자습시간은 가플리안들에게 중요한 시간 중 하나이다. 많은 선생님과 일명 '공신'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역시 자습이다. 그렇다면 경기외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습 공간은 어디일까? 스터디 카페가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학교 자습실이 2위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도서관 또는 독서실, 교실, 집이 각각 3,4,5위를 차지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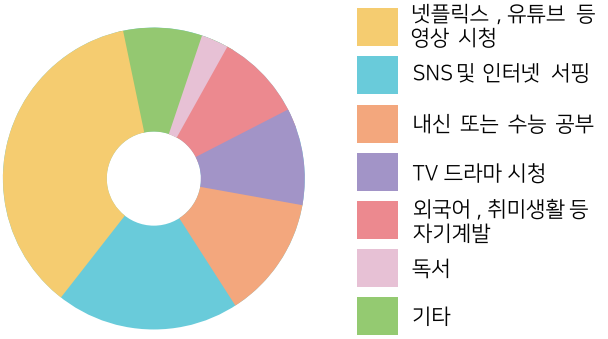
1. 코로나로 취소된 행사 중 가장 아쉬운 행사는?

코로나는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외고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취소되었는데 경기외고 학생들은 어떤 행사의 취소에 가장 아쉬움을 느꼈을까? 1학년들의 GVT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체육대회와 벚꽃 축제가 2위, 3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플리에스타, 경기컵, 뚜띠 콘서트가 각각 4위, 5위, 6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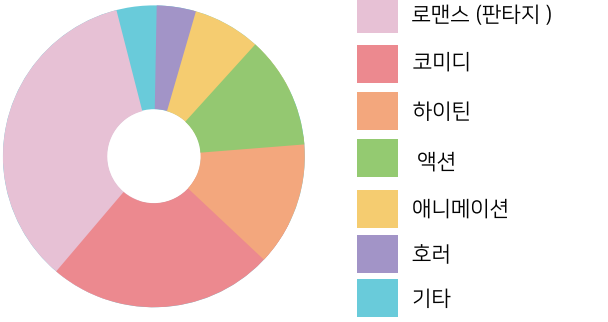
2. GVT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는?

1학년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인 GVT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다. 내년을 기대하는 1학년들과 GVT를 다녀온 2학년 학생들이 GVT를 갈 수 있게 된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는 어디일까? 미국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였고 일본이 2위, 국제 봉사가 3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기타 사항의 아이슬란드와 유럽, 호주가 각각 4위, 5위, 6위를 차지하였다.



3. 개학 연기로, 집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한 것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사상 처음으로 개학이 4월로 연기된 바 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많이 자제했던 터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렇다면 경기외고 학생들이 개학 연기로 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은 무엇일까?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영상 시청이 1위를 차지하였고, SNS 및 인터넷 서핑이 2위, 내신 또는 수능 공부가 3위, TV 드라마 정주행, 자기계발 (외국어, 취미생활 등), 독서가 각각 4위, 5위, 6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기타 사항의 수면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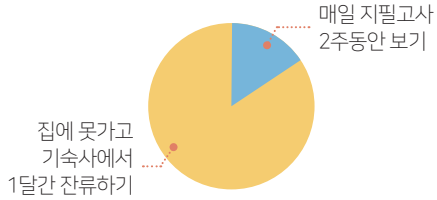


4. 코로나로 인한 외출 자제로 많아진 넷플릭스 시청량, 추천하고 싶은 넷플릭스 (또는 일반 영상물) 장르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리밍 붐이 오면서 넷플릭스는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되었고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경기외고 학생들도 앞선 설문조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강제적으로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 가장 많이 한 것이 넷플릭스 또는 유튜브 등의 영상 시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경기외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넷플릭스 장르는 무엇일까? 로맨스(판타지)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코미디가 2위, 하이틴이 3위를 차지하였다. 4위부터 6위는 각각 액션, 애니메이션, 호러가 차지하였다. 기타 항목에는 블랙코미디와 추리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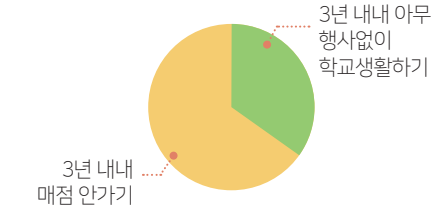
▲ 김노현 기자, 박은지 기자, 최수민 기자

가플리안들의 밸런스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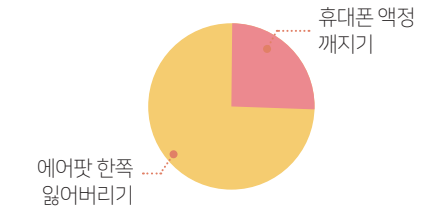
1. 집에 못가고 기숙사에서 1달간 잔류하기 vs 매일 지필고사 2주동안 보기

코로나로 인해 학교 외의 외출이 안된다면 코로나로 집에 못 가고 기숙사에서 1달간 잔류하기와 매일 지필고사 2주동안 보기의 선택지 중 경기외고 학생들은 코로나로 집에 못 가고 기숙사에서 1달간 잔류하기를 선택하였다. 두 항목의 표 차이는 거의 5배로 매일 지필고사 2주는 상상만 해도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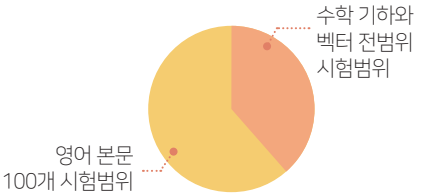
2. 3년 내내 매점 안 가기 vs 3년 내내 아무 행사없이 학교생활하기

학교의 특성상 매점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고 우리 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할 것이냐는 밸런스 게임에 대부분의 학생이 3년 간 매점을 포기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1학년들은 1년 내내 학교에 아무 행사도 없으니 생각 남는 추억이 없다는 반응이었으며 입학 전부터 GVT를 너무 기대했는데 내년에도 못 갈까 너무 속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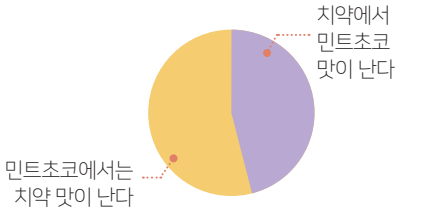
3. 에어팟 한쪽 잃어버리기 vs 휴대폰 액정 깨지기

휴대폰과 에어팟을 많이 사용하는 경기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어팟 한쪽 잃어버리기와 휴대폰 액정 깨지기 중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이라는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2배의 차이로 에어팟을 한쪽 잃어버리는 것이 더욱 화난다고 응답하였다.



4. 영어 본문 100개 시험범위 vs 수학 기하와 벡터 전범위 시험범위 다음 중 당신의 선택은?

시험 기간만 되면 엄청난 시험 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시험 범위로 영어 본문 100개와 수학 기하와 벡터 전범위라는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둘 다 너무 끔찍한데 그나마 영어 본문 100개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과생에게 기하와 벡터 전범위는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기타 항목에 차라리 공부 안하고 만다는 의견도 있었다.



5. 민트초코에서는 치약 맛이 난다 vs 치약에서 민트초코 맛이 난다

민트초코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으로 이에 대한 논쟁은 취향이 다른 서로가 잘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은 부분이다.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민트초코는 어떤 존재일까? 민트초코에서는 치약 맛이 난다와 치약에서 민트초코 맛이 난다를 조사한 결과 단 1표 차이로 민트초코에서 치약 맛이 난다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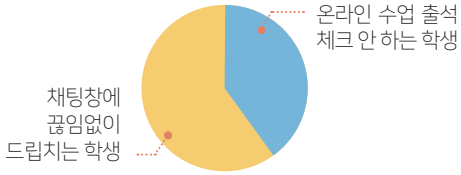
5.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모습 또는 느낌이 가장 달랐던 선생님의 성함은?

1,2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선생님들을 온라인으로 먼저 뵙게 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달랐을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모습 또는 느낌이 가장 달랐던 선생님에 대한 조사에서 13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선생님은 강신혜 선생님이었다. 물론 온라인도 그랬지만, 오프라인으로 뵈니 수업 시간이 더욱 기다려지는 선생님 중 한 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두번째로 12표를 받으신 선생님은 정지혜 선생님이셨다. 온라인에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오프라인에서의 활발한 수업 분위기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권소현 선생님과 존 쉴즈 선생님이 7표를 받으셨는데 이 역시 온라인에서의 느낌과 오프라인에서의 활기찬 느낌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신현필 선생님, 안종협 선생님, 박진 선생님, 장혜인 선생님께서 각각 6표를 차지하였다.

6. 지난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선생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말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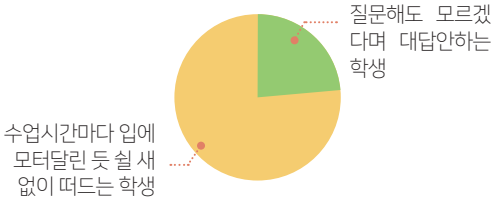
- 힘든 상황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온라인 수업도 실제 수업이랑 괴리감 없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서버 때문에 끊기는 거 말고 수업은 시험에도 지장없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온라인 수업은 실제로 수업하는 거랑 더 다르게 준비하셨을텐데 감사해요.
- 저희 학교만큼 온라인 꾸준히, 효율적으로 한 학교도 없는 것 같아요!!!
- 노트북으로 수업하는 거 많이 답답하셨을거 같은데 항상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경기외고 선생님들의 밸런스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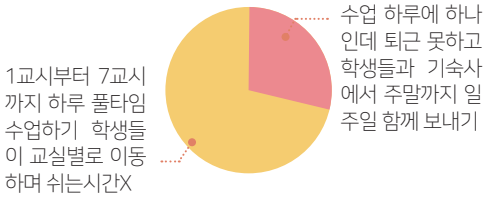
1. 온라인 수업 출석체크 안 하는 학생 vs 채팅창에 끊임없이 드립치는 학생

채팅창에 끊임없이 드립치는 학생이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수업에 출석체크를 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답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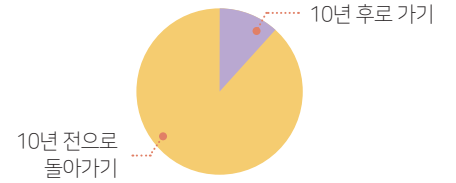
2. 수업시간마다 입에 모터달린 듯 쉴 새 없이 떠드는 학생vs 질문해도 모르겠다며 대답안하는 학생

수업시간마다 입에 모터 달린 듯 쉴 새 없이 떠드는 학생이 낫다는 응답이 많았다. 질문했는데 대답 안해주는 학생들이 있으면 상처받을 때도 있다고 답해주셨다. 정확한 답을 몰라도 "모르겠어요"라는 식으로 대답하기보다는 비슷한 답변이라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고맙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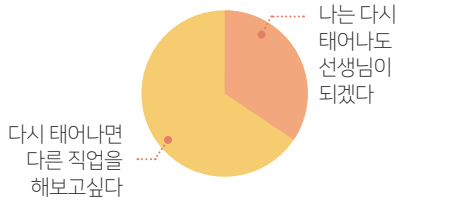
3.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하루 풀타임 수업하기 학생들이 교실별로 이동하며 쉬는시간X vs 수업 하루에 하나인데 퇴근 못하고 학생들과 기숙사에서 주말까지 일주일 함께 보내기

전자의 선택지가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서의 업무가 끝난 후 퇴근해 가정에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해주셨다.



4. 10년 전으로 돌아가기 vs 10년 후로 가기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생님들께서 어린 시절을 많이 그리워하시기에 우리의 학생 시절을 더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 도와주신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5.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이 되겠다 vs 다시 태어나면 다른 직업을 해보고싶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좋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직업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대부분 경기외고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서 생활하신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다른 직업인으로서의 삶도 겪어보고 싶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18어게인 선생님들도 가플리안

1. 선생님들의 매점 최애 메뉴

경기외고의 매점은 선생님들께서도 애용하시는 시설이다. 선생님들은 매점의 어떤 메뉴를 좋아하실까? 설문조사 결과,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커피가 가장 많았고 빙그레 우유, 밀크티(데자와 포함), 흑당버블티 등 음료류가 뒤를 이었으며 로아커, 샌드위치, 흑당버블티, 데자와, 말랑카우 아이스크림, 옥수수아이스크림, 유자차 등의 답변이 나왔다.

2. 선생님들의 학창시절 장래희망

선생님들의 학창시절 장래희망은 어땠을까? PD와 현재와 동일한 교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스튜어디스, 행정공무원, 축구선수, 영화음악감독, 만화방 주인, 행정공무원 등 학생다운 다양한 답변이 있었으며 선생님만 아니면 괜찮았다는 다소 재미있는 답변도 있었다.

3. 18살로 돌아간다면 한달살기 해보고 싶은 도시

코로나 이전, 해외에서 한달살기가 큰 유행이었다. 경기외고의 선생님들께서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천진난만한 한달살기를 시도하셨면 어디를 택하셨을까? 프랑스 파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호주 시드니,미국,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라하, 푼테 아레나스, 싱가포르라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이대로 한국에 머물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4. 다시 선생님이 되신다면 담당하고 싶은 과목

선생님들께서 다시 대학시절로 돌아가 전공을 택해 교사가 되신다면 어떤 과목을 택하셨을까? 현재와 동일한 과목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미술 과목이 뒤를 이었으며 외국어, 국어, 사회, 정보/IT, 체육, 물리 과목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 김노현 기자, 박은지 기자, 최수민 기자

교육계의 모순적인 사건, 스쿨 미투

2017년 10월을 시작으로 하여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SNS에서는 해시태그(#MeToo) 운동이 대중화 되었다. 미투 운동이라고 말하면, 대개 직장 및 사업체 내의 성폭행 및 성희롱을 SNS에 고발하는 행위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투 운동은 직장 및 사업체에만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스쿨미투란, 대한민국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일환이다. 스쿨미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성희롱 등의 사건을 통해 받은 인권침해를 제보 및 폭로를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러한 스쿨미투는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다. 이유는 바로 모순적인 처벌 때문이다. 스쿨미투는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창문에 "WITH YOU", "WE CAN DO ANYTHING"등의 종이가 붙여지게 되면서 운동이 시작되었다. 서울 용화여고를 시발점으로 전국 100여개의 학교에서도 스쿨미투 운동에 동참을 하였고, 관련 교사들은 정직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거나 파면을 당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처벌들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에 의하면, 스쿨미투에 연루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교사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9년 3월 28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한다.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낸 교사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받아 풀려 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진술에 의거하면 중징계가 합당한 피해 내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아니라고 풀려났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황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점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받아야할 마땅한 징계는 오히려 학생들이 받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스쿨미투 운동이 학교의 이미지와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학생들이 더 이상의 제보나 고발을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학생들의 SNS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 냈던 학생들은 주동자 색출 위협과 소외, 조롱을 견디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나가거나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더디고 미흡한 조치가 불러일으킨 결과이다. 마땅히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우리는 아동학대 및 아동인권 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문제 해결의 결정적 주체인 학교가 은폐 및 축소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하는 등의 교육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교육계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 임지예 기자

코로나로 지친 마음 위로해준 경기외고 할로윈 파티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힘든 삶을 가끔씩 위로해 줄 행사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 갈 무렵, 국제반에서 학교 학생들을 위한 할로윈 파티를 준비했다. 한시간 동안 매점 앞 공간에서 진행되었던 행사로, 귀신의 집 체험이나 포토부스, 미니 타투 등 작은 부스들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남겨주었다. 귀신의 집 안에는 국제반 1학년 학생들이 그럴싸한 분장을 무섭게 하고 있었고 세트장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것이 느껴졌다. 함께 체험했던 우리 팀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잘 놀라서 오히려 더 깜짝 놀랐던 귀신도 있었다. 포토부스에는 할로윈의 분위기에 맞는 귀여운 소품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예쁜 배경이 준비되어 있어 사진을 찍는 잠시나마, 학교가 아닌 곳에서 열리는 할로윈 파티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었다. 평소에 국내반과 국제반은 일정도 다르고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내용이 정말 달라서 마주칠 일이나 교류가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제반 친구들과 대화도 해보고 사진도 부탁해보고, 그들이 준비한 것을 체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의 뿌듯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국제반 친구들이 바쁜 일상 속 할로윈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을 테지만 할로윈 파티 진행 과정 중에서 웃으며 즐기는 모습을 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울하게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 사이사이 소소한 행복한 점들을 찾아서 느낀다면,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 바쁘지만 그 와중에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인 태도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어떨까?

▲ 최다연 기자

넷플릭스 '공짜망' 논란, 더욱 중요한 건 그들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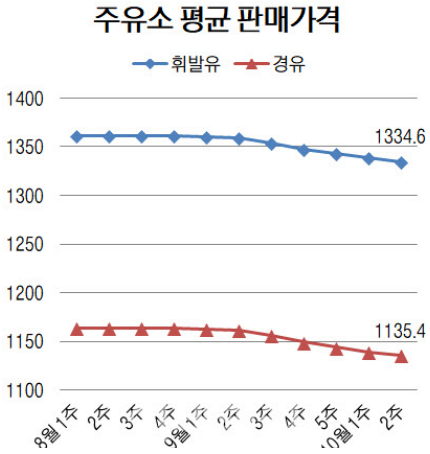
20대 국회가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놓고 국내 이동통신업계와 IT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란 콘텐츠 사업가(CP)에 통신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해외 CP들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재의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하여 이동통신 업계에선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발생하는 현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반면 IT 업계에선 법안이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넷플릭스, 텔레그램보다는 국내 기업들만 옥죌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료'를 두고 협상을 벌이다 소송까지 벌어졌다. SK 측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넷플릭스 측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그들의 날선 주장 뒤엔 하나의 동일한 문장이 있다. 그것은 만약 자신들이 소송에서 진다면 이용자들의 요금 인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에 대한 요금을 요구하자 처음부터 이용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가 화질별로 추가 수익을 챙기며 통신망에 막대한 부하를 일으키는 와중에 이번 변동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망을 증설하기 위해 쓰이는 수천만원의 요금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웠다. 넷플릭스든 SK브로드밴드든 결국엔 한쪽은 패소하고 어느 한쪽은 이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패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어느 쪽이 지든 상관없이 요금 인상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에게 두 기업은 만약 우리가 이기면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넷플릭스와의 분쟁에서 승소한다면 '넷플릭스 제로레이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 가입자의 경우 데이터 소진 없이 넷플릭스를 감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익을 이용자에게 환원하는 식이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동영상 서비스의 대거 사용에 망 부하를 감당하지 못해 전체 인터넷이 마비된 경험이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런 전적이 없다. 만약 분쟁에서 승소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인터넷 인프라를 공짜로 사용하며 막대한 수입을 얻는다면, 적어도 한국 이용자에게는 '초고화질' 요금을 추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대신 일반화질 요금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사업자의 도리에 맞는 것일 것이다.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넷플릭스는 '화질'별로 추가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이기에,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가 이것을 떠받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망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기업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망 투자는 통신사의 의무일 뿐, 콘텐츠업체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익을 계속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냉정하게 말해 두 기업의 패소로 인해 이후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이용자들의 요금 인상의 폭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럼에도 '승소 시 혜택을 제공하라' 라고 이야기를 내는 이유는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는 기업들의 행동 때문이다. 두 회사는 겉으로는 고객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 형태는 자신들이 감당해야할 모든 피해를 고객에게 독박 씌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의 망사용료 분쟁에서 '이용자 중심의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사업자간 재정을 할 때는, 양측의 비용이 망 품질 투자나 요금 인하 등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이시현 기자

국내 휘발윳값 11주 째 연속 하락세



최근, 국내 휘발윳값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주유소에서 휘발윳 값이 11주째 감소하고 있다. 한국 석유 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020년 11월 7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리터 당 1327.9원이던 지난 주보다 국내 휘발윳값이 5.7원이나 하락했다. 여기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개별 주유소 판매가격의 합을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눈 값을 뜻한다. 이처럼 8월 이후부터 국내 휘발윳 값은 계속해서 떨어지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석유 공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등에 따른 석유 수요 우려, 리비아 석유 생산의 빠른 증가 등 하락 요인과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규모 유지 가능성,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감소 등 상승 요인이 상쇄되면서 보합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정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확산, 미국 드라이브 시즌 종료 등 정유제품 수요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게 되면 국내 판매 휘발윳값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했다. 뿐만 아니라, "정제마진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하락은 정유회사들의 실적 개선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정다연 기자

사과데이,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다!

지난 11월 친구사랑의 주간을 맞아, 상담운영위원회 또래상담부가 주관한 '사과데이' 이벤트가 3일간(11.02~11.04) 진행됐다. 이 이벤트는 그동안 친구에게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배려심을 기를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다. 학생들이 포스트잇에 편지를 적고 각 층에 비치된 우체통에 넣으면 또래상담부 부원들이 이를 모아서 예쁘게 포장한 간식과 함께 전달해주는 방식이었다. 경기외고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120여개의 쪽지가 모여서 친구들에게 전해졌다. 사과데이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이런 이벤트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친구에게 사과를 하면서 미안했던 감정들을 떠올려보니 나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등의 소감으로 사과데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었다. 사과데이를 계기로 경기외고 학생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 이지윤 기자

독감 예방 접종 : 과연 그 진실은?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 큰 파문이 있었다. 물론 사망과 예방접종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독감 예방 접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정부는 사람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예방 접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며 오히려 작년에는 1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 했다며 예방 접종과 지금 사망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사망자 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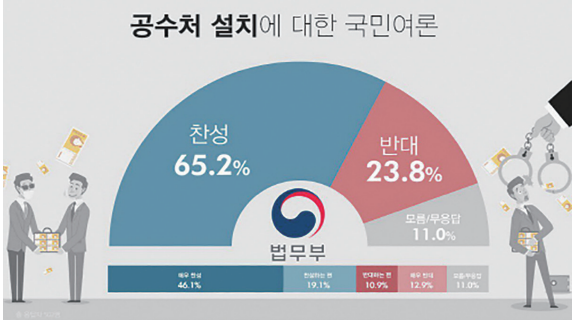
지금까지 정부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난 후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밝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올해 파문이 일자 갑자기 작년에 예방 주사를 맞고 1500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를 하며, 이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니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실온에 보관하며 유통을 잘못하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민감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상황이 복잡해져 많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 주사에 문제가 생겼고, 현재 후유증으로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인천에서 한 10대 고교생이 독감 백신 접종 뒤 이틀만에 숨져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정부에서 이 사건은 부검 결과 독감 예방 접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10월 27일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망한 고교생의 형이 백신 접종과 동생의 죽음이 연관성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상규명을 호소한 것이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국과수에서는 독감과 관련이 전혀 없다는데, 사망하는 데 영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감 주사를 맞고 난 다음날 몸에 힘이 없고 기운이 없다며 저녁조차 먹지 않은 동생이었다"며 국과수는 부검 결과 아질산나트륨이 치사량으로 위에서 다량 검출되었다고 하였고, 이에 독감 백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자살 혹은 타살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다며 주장하였다.

일단 재활용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개의 병에서 아질산나트륨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가족의 집에서 나왔는지 확실치 않고 동생은 성실하게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으며 대학 입시도 거의 다 마치고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최소인 상태였기에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고교생이 최근 아질산염을 모처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였고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학생의 죽음은 백신 접종과는 무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상황에도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과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정부의 대응은 의문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번에 밝힌 작년 사망자 수 1500명이 실제로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한 사람들이라면 백신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예방 접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밝힌 적 없는 자료를 가져와 올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와 비교하여 '올해 사망자 수는 적다.'라며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가?'라는 의문도 든다.

▲ 박세윤 기자

양날의 칼, 공수처 설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정치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여러 차례 무산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해당 법안의 추진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2017년 10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회는 2019년 4월,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4개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으며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의 목적이나 의의만 보았을 때는, 공수처 설치가 논란이 되는 이유 또는 공수처의 문제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정치계의 의견은 왜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것일까?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권력 중 일부를 이양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검찰개혁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와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척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꺼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반대 의견은 '만일 공수처가 부패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시작한다. 가장 강력한 여론은 공수처 처장 임명에 있어 정치적 권력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은 7인의 추천위원회 중 6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이때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여당추천 2인, 야당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중 야당추천 2인과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을 제외한 4인이 여당의 권력이 미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공수처 진입 조건이 수사나 재판 경력이 아닌 '조사 경력' 5년 이상이라는 것 역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앞서 한 야당 의원이 법안에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제안했지만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을 문제 삼아 공수처장이 대통령이나 여당을 상대로 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리얼미터(realmeter)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이 65.2%, 반대가 23.8%로 찬성이 우세했다. 관련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견제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견제기관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대립이 주를 이루었다. 어떠한 기관이든, 그 권력을 견제할 만한 기관이 있어야 더 옳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견제 기관 역시 권력의 힘이 미친다면 이를 옳은 견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공수처 설치가 국가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설치 이후 더 균등하게 힘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면, 권력을 균등하게 하는 기관으로서 잘 작동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 박은지 기자

작은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지난 2018년,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한 올리브바다거북의 코에 빨대가 꽂힌 채로 발견되었다.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하여 종이 빨대를 제공하고, 맥도날드는 플라스틱 빨대가 필요 없는 음료 뚜껑을 도입하는 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외고에서는 아직도 무수히 많은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고 있다. 경기외고 매점에서 스무디나 버블티 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주고, 종이 컵 홀더를 끼워주며, 플라스틱 빨대도 꼭 꽂아준다. 하루 평균 팔리는 음료의 수를 생각하면 적어도 수십 개의 일회용 빨대가 사용되는 것이다. 매점에서 캔음료나 병음료를 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빨대를 가져가는 것, 플라스틱 컵에 담아 급식실에서 제공하는 음료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빨대와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빨대와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품은 해양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마모되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유입된다. 이를 물고기들이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고, 인간이 해산물을 섭취하면서 우리의 몸 속에 쌓이게 된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환경보건공학 바이오디자인 센터의 롤프 홀든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플라스틱 속의 화학물질들은 당뇨병, 비만, 성 기능 장애, 불임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중요한 신체 기관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석면처럼 발암성 물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 가플리언들의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불필요한 빨대는 사용하지 않고 매점에서 스무디와 버블티 음료를 마실 때는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 가는 것을 권장한다.

▲ 양시연 기자

파일럿, 하늘을 사랑하라

누군가는 파일럿이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 혹은 전투기를 조종하며 적들과 싸우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파일럿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특별한 일들을 겪는다. 바로 하늘을 나는 일이다. 문득 길을 걷다 하늘이 아름다운 날이면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어 사진을 찍거나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한다. 아름다운 하늘에 우리는 한껏 매료되어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게 된다. 하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하고도 쉬운 선물이다. 이번 기사에서 파일럿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보려 한다.

파일럿은 공군을 거치거나 그 외의 시설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민항사 파일럿이 되는 방법, 총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두 방법 중 어떠한 것이 더 좋다고는 쉽게 말할 수 없다. 과거에는 공군에 들어가지 않으면 파일럿이 되기 힘들었던 반면 현재는 수많은 비행훈련원이 국내외에 생겨서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군을 거치지 않고 파일럿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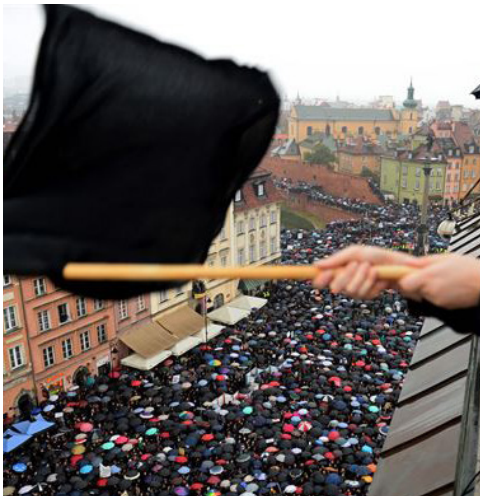
공군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공군사관학교에 조종특기로 지원을 하여 합격을 하거나,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교통대학교 항공운항과와 같이 공군학군단(ROTC)가 설치된 대학교에 진학하여 공군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공군사관학교는 15년 이상의 의무복무기간이 있고 학군단 역시 10년 이상 공군에서 복무를 해야 전역할 수 있다. 공군에서는 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전투기뿐 아니라 수송기, 공중급유기 등 다양한 항공기의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의무복무기간동안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한 후에는 여러 민항사에 취업하여 민항기를 몰 수 있어서 전역 후 생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또한 파일럿이 되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걱정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공군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요구하는 성적은 최상위권이며 체력시험 역시 만만치 않다. 신체적으로도 학력으로도 완벽한 사람만이 공군에 들어가 파일럿이 될 수 있기에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꼭 공군 파일럿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의 경우로 해군 혹은 육군을 통해 파일럿이 되는 방법이 있다. 해군과 육군에서도 초계기, 헬기와 같은 항공자원들을 운용한다. 따라서 꼭 공군이 아니어도 군 파일럿이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다.

다음은 군을 거치지 않고 파일럿이 되는 길이다. 민항사에서 꼭 군인 출신의 파일럿만 뽑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채운 사람에게도 기회는 주어진다.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행훈련원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울진 비행훈련원이 있고 해외에도 많은 비행훈련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곳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항공사에서 원하는 만큼의 타임빌딩을 통해 민항사 파일럿이 될 수 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채운 자에게만 입사 기회가 주어진다. 항공사들이 비행시간을 요구하는 이유는 비행시간이 파일럿의 능력을 검증해주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타임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더 수월하게 파일럿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한국항공대, 한서대의 항공운항과에는 여러 연계과정이 있어서 더 수월하게 비행시간을 쌓아 민항사 파일럿이 될 수 있다.

파일럿이 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리스크가 있고 얕은 의지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파일럿이 될 수 없다. 하늘을 품에 안고 날기 위해서는 분명 많은 노력과 고난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하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이 있다면 분명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간절함의 차이가 결국 승리를 결정하듯, 간절함으로 모든 꿈에 도전한다면 그 미래에는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하늘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 정주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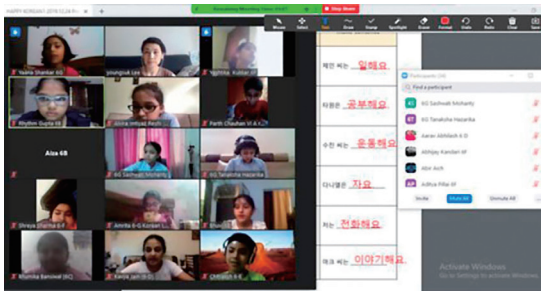
검은 시위, 폴란드의 낙태 반대



폴란드에서 코로나19 판데믹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수립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민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정부에서 강화한 '낙태금지법' 때문이다. 본래 폴란드에서는 낙태를 강간, 근친, 태아가 장애가 있는 경우, 여성의 신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경우에만 법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22일 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리며 해당 경우에 대한 낙태의 법적 허용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여성운동가들을 비롯해 심지어는 택시운전사, 농부, 광부들까지도 낙태를 상징하는 '검은 옷걸이'를 들고 거리로 몰려나와 거센 시위를 일으키고 있다.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는 성당에서도 미사를 방해하며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는 가톨릭교 성당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낙태법의 제한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과거 폴란드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었을 때 낙태법의 제한이 자유로웠던 것에 비해 현재는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낙태법이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낙태법 판결이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폴란드 대통령이 24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만큼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미숙한 대응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키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 이채원 기자

인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다



지난 7월 30일,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 교육 정책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 새롭게 편입되었다. 특히, 제2외국어로 예시한 8개 언어 중 한국어를 맨 앞에 배치해 인도정부의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인도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 권장 과목으로 채택한 계기는 무엇일까? 그 계기에는 한류와 한국의 여러 문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도에 한류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유명 가수나 아이돌의 인기 정도에 그쳤지만, 2017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면서부터 한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도의 Bollywood(볼리우드)라고 불리는 영화산업계 극영화의 제작편수가 연간 평균 300편을 넘어서면서 양적으로는 미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영화산업국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인도의 <고아 인도 국제 영화제>에 참가하여 영화 17편을 상영하기도 하였다. 주인도한국대사관과 주인도한국문화원은 인도 정부에 이러한 한국의 영향력을 근거로 하여 한국어 채택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그 결과 한국어가 제 2 외국어로 채택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주인도한국문화원은 2012년 개원한 이후 한국-인도 간 관계 강화와 한국기업 인도 진출에 대응해 한국어 보급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 이들은 105개 인도학교와 문화교류협정(MOU)을 체결하고 연인원 학생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한국 관련 수필(에세이) 대회 등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세계 2위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자, 한국의 다자외교 정책인 신남방 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인 인도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해 4개 세종학당을 통해 2천 5백여 명이 넘는 수강생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6월 푸네, 임팔, 벵갈루루에 세종학당을 새롭게 지정하였다. 문체부는 후속조치로써 인도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한국어 현지 교원 양성 과정 운영 및 전문 교원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올해 하반기 인도 지역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인도 지역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세종학당재단은 인도 내 한국어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 전문교원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 교원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을 거쳐 양성된 한국어 교원들은 초,중등학교, 대학, 세종학당,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것이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 할 만큼 우리 말과 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큰 인도. 앞으로 인도에서 더욱 많은 이들이 한국문화를 즐기고 한국어를 배워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떨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박주은 기자

태국 민주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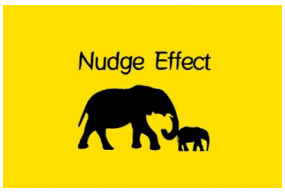
태국에서는 1987년 한국의 6월 민주화 항쟁과 비슷한 반정부, 민주화 운동이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시위대는 거리로 나와 세손가락 경례를 하고 "쁘라윳, 나가라!"를 외치며 정부에게 총리 퇴진과 군주제, 왕실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아주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10월 16일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를 이용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10월 17일에는 방콕 도사 철도인 스카이트레인과 지하철의 주요 환승역을 폐쇄하는 등 시위 규모 축소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군인 출신으로 2014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뒤 계엄통치를 해왔다. 지난해(2019) 총리가 2월 총선을 앞두고 재집권에 유리하도록 헌법을 고쳤고, 국가 질서 회복 등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정치 집회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군부 정권 연장 저지를 내세워 2017년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제3당이 된 퓨처포워드(FFP)를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2020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시켰다. 이에 반정부 집회가 일어났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금방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2020년 태국 방콕 경찰청이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를 풀려나게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불꽃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레드불 창업자 손자인 오라윳 유위티아는 2012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도 모자라 해외로 도피하여 향락을 즐겨 태국 국민을 분노케 하였다. 이 사건을 올해 7월 태국의 경찰청이 뇌물을 받고 한화로 2,00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게 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하여 공분을 일으켰다. 여기에 태국의 현 국왕인 라마 10세는 호화생활, 축첩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선왕인 라마 9세는 생전에 어려운 국민의 손을 잡고,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태국을 중진국 반열에 올려놓으며 국민의 추앙을 받았다. 동시에 이들은 자연스레 국왕을 존경하라고 교육받았다. 선정을 기억하고 따랐던 태국 시민들에게 왕정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전 국왕과 다르게 라마 10세에 대한 신망이 두텁지 않았다. 라마 10세는 수차례 반복된 결혼과 이혼 등 복잡한 사생활과 잦은 해외 체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는 4번째 부인인 수티다 왕비와 결혼한 지 두 달만인 지난해 7월 또 다른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였다. 또 와치랄롱꼰 국왕(라마 10세)은 400억 달러(한화 약 4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왕실 재산과 군대를 사유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런 라마 10세의 사생활이 태국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주었고 왕실 개혁을 요구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이다.

태국은 SNS에서 'WHAT IS HAPPENING IN THAILAND'라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자국의 시위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민주화 운동으로 많은 위험이 있는 현 상황에서 시위대와 정부가 하루 빨리 협상을 진행하여,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과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태국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를 바란다.

▲ 조규현 기자

부드러운 개입, '넛지' 와 마스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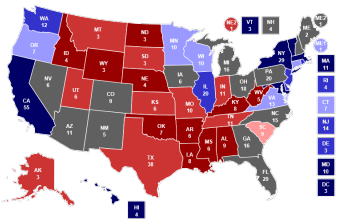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마스크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 중 26%에 해당하는 520만 명의 감염자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감염자가 급등한 배경에는 '마스크 정책 실패'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미 공영라디오인 `NPR`는 미국의 마스크 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넛지` 정책의 부재를 꼽아 눈길을 끈다. 넛지(Nudge)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또는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으로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뜻한다. 그렇다면 NPR는 어떤 이유로 미국의 코로나19 마스크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한마디로 미국 사회에서 `부드러운 개입` 역할을 하는 넛지형 리더와 정책 노력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제1'의 부드러운 개입자 역할을 해야 할 이는 대통령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 기간 내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가 7월 말에서야 뒤늦게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며 입장을 바꾸는 등 되레 마스크 정책 실패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국 지난 10월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 `제2`의 부드러운 개입자 역할을 해야 할 주지사들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반(反) 마스크 행보를 취했다. 그 결과 마스크 착용 문제가 `민주 당원이냐, 공화 당원이냐`를 판가르는 정치적 낙인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2002년 사스(SARS)나 2015년 메르스(MERS)가 유행했던 때와는 달리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 언론과 정부에서도 코로나19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이전의 다른 사례와는 확연히 달라진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동조성(conformity) 역시 마스크를 착용을 증가시킨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즉,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종의 '넛지'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나 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편의대로 선택할 용기가 생긴다. 그런데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면 무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을뿐더러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또 다른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시대에서 나타난 '넛지' 중 하나이다. 미국의 넛지에 대한 마스크 정책의 적용의 실패 사례와 한국의 마스크 사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넛지형 리더와 정책의 노력이 있다면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도, 앞으로 다가올 사회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오수빈 기자

2020 미국 대선과 미국 연방제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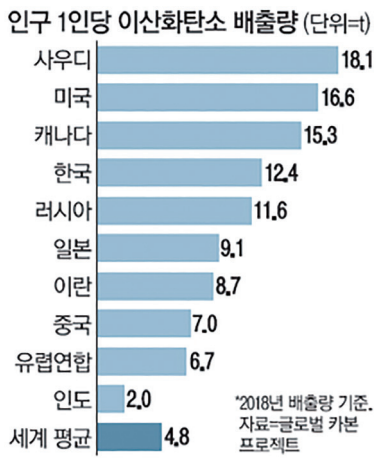
2020년 11월의 시선은 모두 미국을 향해 있었다. 미국의 2020년 대선은 미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시선을 모으기 충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는 더욱 흥미로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특이하다고 할 만한 자국우선주의의 아이콘 적인 인물인 트럼프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유명했던 바이든의 대결은 겨울을 맞이하여 차례대로 막을 내리고 있는 각국의 스포츠 리그를 대체하는 듯하였다. 이번 미 대선은 반전의 반전이라고 할 만했다. 코로나 사태와 BLM운동등 모든 최근 이슈들이 트럼프 정권의 패배를 점쳤지만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를 공화당에서 선취한 것이었다. 그렇게 트럼프의 재선이 눈 앞에 보이는 듯했지만, 바이든이 연이어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역전을 하고 네바다, 애리조나, 그리고 펜실베니아까지 확고한 승리를 거두며 90시간의 사투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 90시간, 이것이 바로 세계 일류 국가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이러한 투표시간의 장기화의 원인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미국의 연방제다. 미국의 정식 명칭인 미합중국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건국 당시의 13개의 주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러 총 50개의 주가 국가를 이루는 연방 국가이다. 그렇기에 미국의 특이한 투표인단제도 또한 이러한 각주의 의견을 나누어 반영하다 보니 생겨난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제는 금융, 군사, 자치보안, 법령 등 미국의 모든 분야에 있어 근본적인 영향의 근원이다. 이러한 연방제는 기본적으로 각 주가 연방정부, 즉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그러기에 이번 흑인 인권 시위 당시에도 중앙정부의 치안 유지 시도는 이러한 미국의 연방 정신에 반대되어 큰 논란을 산 것이다. 행정의 실용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연방제는 사실 수많은 중간과정을 생산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오래전부터 이러한 연방제의 폐지나, 또는 투표 과정에 있어서라도 직선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방제의 개혁은 가능한 목표일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정체성은 미국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안정적이며 불변적인 요소로부터 유래한다. 이민자로 인해 급변하는 국민이 아닌, 끝없는 개척으로 확장되는 국토가 아닌 13개의 주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원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근원은 바로 헌법이다. 이러한 헌법에 근원을 두고 있는 미국 연방제의 정신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간적 거리의 의미가 희석되는 정보화에 시대에 연방제를 고집하는 미국의 자세는 언젠가는 후대의 과제로 다시 한번 등장할 것이다.

▲ 서강현 기자

국제 사회의 환경 외교 : 지구,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은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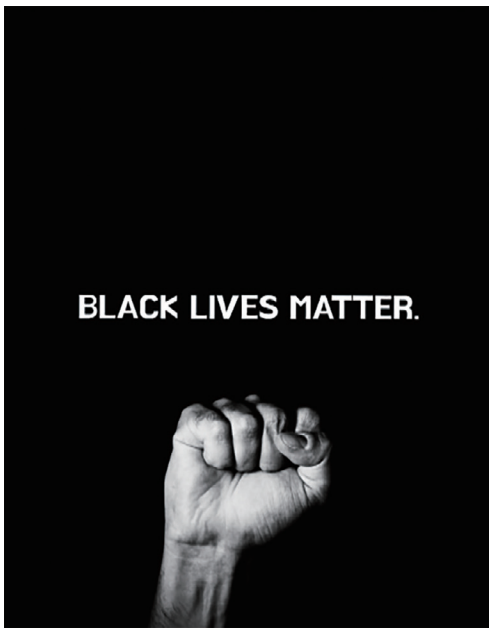
'시베리아' 하면 하얀 눈밭과 옷을 껴입은 사람들, 시베리안 허스키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베리아는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 베르호얀스크의 섭씨 38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8만년 만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비정상적인 폭염과 이로 인한 대형 산불까지 계속되어 큰 고충을 겪고 있다. 2003년부터 관측된 위성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6월 북극에서의 화재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급증했다. 런던정경제대의 환경지리학자인 토머스 스미스 교수는 북극의 기온이 최근 수년간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산불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양을 늘리는 탄소를 대량으로 방출한다. 과학자들은 더 많은 산불의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을 예측하고 있다. 결국 온난화로 인해 북극 지방이 건조해지며 산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에너지 공단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가 1℃ 상승하면, 가뭄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사라지며, 기록적인 폭염, 폭우, 미세먼지 등 기상 이변 현상이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2℃ 상승 시에는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 지구의 온도가 3℃ 오른다면,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에 아마존 우림 지대가 파괴되어 사막화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가뭄이 찾아와 많은 사람과 생물이 기근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구의 기온이 4℃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아지며 많은 도시들이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젠가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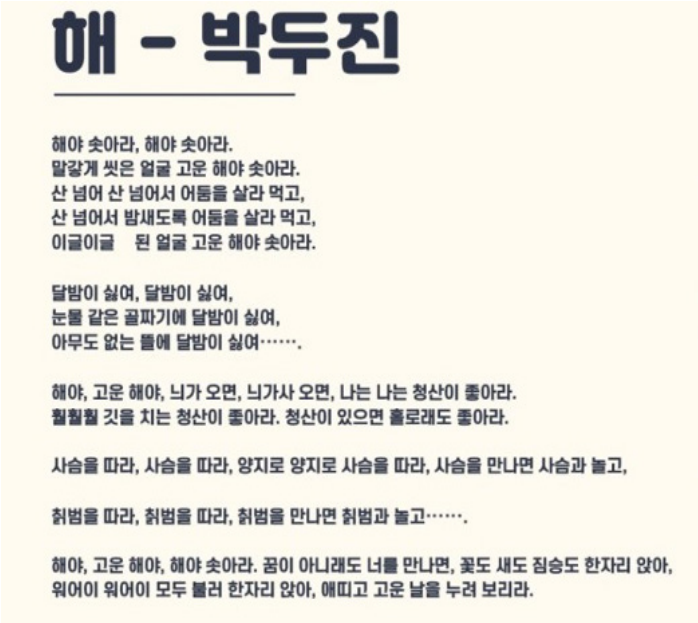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엄청난 양의 프레온 가스와 온실가스 등의 해로운 가스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욕심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멸종 같은 환경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고 있는 주제이다. 1982년 오존홀 발견과 1988년 미국을 습격한 이상 열파 등을 계기로 지구환경에 대한 국제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국제 사회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인 과제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환경 단체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국제연합회의나 지구환경에 대한 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외교적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협약들은 잘 실천되고 있을까? 교토 의정서에서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해 합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경제 발전을 먼저 이룬 선진국의 환경 보존의 의무를 중시하였다. 교토의정서에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규정하고 선진국 전체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이하로 줄이는 목표를 정하였다. 하지만 효력이 발생되기도 전에 자국의 이익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선진국들의 반발이 심하였다. 이에 2001년 미국의 탈퇴 선언을 시작으로 일본, 캐나다, 러시다 등의 선진국들이 연이어 탈퇴를 선언한다. 또한, 산업 개발을 위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던 중국, 인도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 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국제적인 위험 인식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온실감축에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교토 의정서는 2020년 만료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역할을 이어 나가게 된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어진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총 195개 국가가 서명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온도 1.5도 이하로 제한하며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절대량을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감축을 노력하고 5년마다 모여 감축 목표를 재검토하는 것 등이 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대부분 국가가 서명했을 뿐 아니라 환경 보존에 대한 의무를 전 세계의 국가들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 중도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 가스 감축 목표치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포함돼 실질적인 국제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만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다면,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보다 폭넓게 다룬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도 담아 해당 국가의 반감을 줄였다.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에너지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할 정도로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또한 국가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의 수출산업은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여겨지는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그린 뉴딜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길 기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인간의 욕심으로 많은 동물들이 희생된다는 사실도 매우 잘 알고 있음에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들은 현저히 낮다. 내년부터 실행되는 파리기후협약은 어느 나라도 탈퇴하지 않고 목표하는 지점을 달성하여 실제로 지구온난화에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 문제 해결은 당장의 빠른 발전을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느리더라도 탄탄한 발전을 하기 위함이다. 전세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의 이익을 위해 실천하게 되기를 바란다.



▲ 김노현 기자

솟기 시작한 '해' : 조지 플로이드 사건





해 - 박두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늬가 오면, 늬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우리 민족이 막 광복을 맞았을 때, 박두진 시인은 <해>라는 시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세계를 노래하였다. 아픔과 고난을 뜻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과 정의의 표상인 '해'를 갈망하고 있다. '눈물 같은 골짜기'가 '청산'이 되기를 소망하며, 약자인 '사슴'과 강자인 '칡범'이 하나가 되어 약자와 강자가 함께하는 화합과 공존의 새 시대를 꿈꾸고 있다. 시인이 말한 해는 현재, 시가 쓰이고도 75년이 흐른 이 시대에 솟았을까?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사망하였다. 백인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약 8분간 경찰의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과잉진압과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의 죽음에 대한 추모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Black lives matter', 'Justice for George Floyd'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과 함께 일어난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퍼졌으며, 점차 폭동과 총격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며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일부 도시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하고, 방위군을 소집하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무력을 행사한 시위대를 건달이라고 지칭하고, 1967년의 흑인 시위 당시 흑인 시위에 대한 폭력적 보복을 공언한 윌터 헤들리 경찰국장의 문구를 인용하여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많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한 시위의 모습도 있었지만, 평화적 시위도 많은 곳에서 일어났다. 2016년 미국 미식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의 행동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시합 전에 성조기 앞에서 국가를 제창하는 것이 일방적이었다. 하지만, 콜린 캐퍼닉은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나라에 존경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립하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하였다. 이런 행동 때문에 그는 팀에서 방출되고, 선수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콜린 캐퍼닉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의 신념을 이어받아, 평화적으로 시위를 열었다. 또한, 스포츠계에서는 한쪽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하면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참여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위를 통해 미국 사회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1967년 미연방대법원의 판시로부터 시작된 '공무원 면책권'이 그중 하나이다. 선의로 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헌법상 권리 '공무원 면책권'은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계속돼 온 소수인종에 대한 사법적 차별의 근거와 핑계가 되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냈다. 또한, 이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유사한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문제화하는 등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세상, 박두진 시인이 말하는 해는 75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솟지 않았다. 흑인은 여전히 약자의 위치에 백인은 여전히 강자의 위치에 있다. 공존이 아닌 누군가는 여전히 차별과 억압 속의 어둠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75년 전과는 다르다. 강자와 약자가 절대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우리는 강자의 잘못을 말하고, 약자가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와 화합이 있는 약과 강의 공존의 세상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이 힘을 발현하게 하여, 여러 사람이 차별에 맞서도록, 공존으로 가도록 하였다. '인종차별'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해'는 아직 완전히 솟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솟아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올릴 차례이다.

▲ 강서현 기자

보름간의 의사 파업이 남긴 유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지난 9월 8일 오전 7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부 반발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 간 파업 종료 합의에도 복귀를 유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대전협은 다만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이 구제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전협은 지난 5일 저녁~6일 새벽에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단체행동 잠정 유보 결정을 내렸으나 내부 이견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룬 바 있었다. 이 일로 인해 내부 소통력 부재와 오락가락 행보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의사 파업이 지금 당장은 봉합됐지만, 남긴 상처는 크고 향후 과제는 더욱 무겁다.

정부는 그간 관련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하필 코로나 19 시국에 의사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가지 성급한 의료 정책을 밀어붙여 분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사들 역시 엄중한 시기에 환자들을 볼모로 '제 밥그릇 지키기'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질타를 면치 못했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 모두 코로나 19 사태 안정화 이후 치열한 논의로 의료개혁을 위한 최적의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내야 할 새 과제를 안았다.

이렇게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가게 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셈이다. 이번 파업을 교훈 삼아 집단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들을 추진할 때는 충돌이 있기 마련이지만, 의사 파업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으로 달린 문제이기에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이해관계를 대입하기 어렵다. 그만큼 의사들에게는 엄정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파업에서 의사들에게 유독 쓴소리가 집중된 이유 중 하나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입증되듯이 공공의료 강화는 우리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중 하나임에도 잇속을 채우려는 의사들의 반발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의사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 역시 필연적이다. 현재 의정 갈등은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의료체계 개편이 상당 기간 늦춰지거나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을 쳤다"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뒤이어 의사 파업 와중에 불거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는 또 따른 화두이다. 의사 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실기시험 기간이 9~11월이다. 정부는 실기시험 일자를 늦추고 시험 재접수 기한도 연장했다. 하지만 의대생 대표 단체의 국시 거부로 응시율이 14%에 그쳤고, 정부는 예정대로 시험을 시행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대규모 미응시 사태가 현실이 됐다. 이에 따라 인턴 의사, 공중보건의, 군의관 부족이 예상되는 등 의사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전협은 업무 복귀를 선언하며 조건으로 응시 거부 의대생 구제를 요구했고, 의협도 구제책 마련을 주장했다. 응시 기회를 주라는 요구와 함께 불이익 시 다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와 협박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다시금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의 기싸움이 시작되었다는 평가는 잇따른다. 이에 두 집단 모두는 앞선 집단휴진이 남긴 것은 씁쓸한 비난과 날선 눈초리가 전부였다는 점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 의사 파업이 지금 당장은 봉합됐지만, 남긴 상처는 크고 향후 과제는 더욱 무겁다는 말을 말이다.

▲ 김다현 기자

유튜브 휩쓴 '뒷광고' 논란…..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8월 초 유튜버 참 PD와 홍사운드 등 유튜버들의 뒷광고 폭로를 시작으로 유튜브에 이른바 '뒷광고 사태'가 터졌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사과 영상을 올리거나 은퇴를 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뒷광고를 묵인하고 있다. 그동안 시청하던 영상들이 대부분 광고였음을 모르던 시청자들은 유튜버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뒷광고란 광고가 아닌 순수한 리뷰인 척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뒤로는 돈이나 배대급부를 제공받는 형식으로 이를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많은 유튜버들은 영상에 등장하는 제품들을 자신이 돈을 직접 주고 산 물건, 일명 '내돈내산'인것처럼 포장해 시청자들을 속여왔다. 뒷광고 논란은 많은 먹방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뿐만 아니라 식품외식업계와 의료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뒷광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하는지, 주요 쟁점과 뒷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어느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현 시점에서 이 문제는 인터넷 유명인들에 대한 법적 문제보다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척 시청자들을 속여온 도덕적인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기존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에는 정보를 빙자한 과장된 광고들이 만연했고, 드라마, 예능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도 뒷광고나 다름없는 PPL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유튜브 뒷광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노출시킬 뿐 제품에 대해 리뷰를 하지는 않지만 유튜브에서는 보통 리뷰를 하고 추천을 하기 때문이다. 유튜버는 제품에 대한 주 콘텐츠가 리뷰나 홍보인 사람들도 많기에 다른 뒷광고가 아닌 영상을 보고 신뢰를 쌓은 소비자들은 뒷광고 영상도 표기가 없기에 다른 일반 영상과 같다고 생각하며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뒷광고 사태 영상들의 주 제품들이 식품관련이고 의료 광고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식품외식업계와 의료계에도 많은 파장이 일어났다. 의료광고의 경우, 공정위 지침과는 관계없이 의료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의료 행위와 관련된 뒷광고 역시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뒷광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 광고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식품외식업계와 의료계의 뒷광고가 들키지 않기만을 바라서는 안된다. 어떻게 해야 공정하고 안전하며 문제가 없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광고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광고사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시청자 역시 크리에이터들의 리뷰를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내용의 기본 정보 등을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해 더 자세하고 확실한 광고표시 가이드라인들과 규제를 마련해야한다.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돼 전보다 더 건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 조규현 기자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

우리는 이번 여름 충격적인 한 죽음과 마주했다.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아직까지 성폭행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터넷상에서도 서로 적과 적이 되어 싸우는 모습이 자주 보이곤 한다. 누군가는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의 과오에 비난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 과연 죄 하나가 지금껏 쌓아왔던 많은 업적들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가.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은 감히 비난할 수 없다. 군사정권 시절 젊은 변호사였던 박원순은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청춘을 모두 걸어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했다. 서울 시장으로 선출된 후에도 여러 혁신적인 정책들을 내세우며 위대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그가 큰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죄를 지으면 때로는 그에 따른 참혹한 대가를 받기도 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하나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거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 그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과오가 자신에게 어떠한 대가를 가져다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 대가는 그가 눈을 뜨고 감당하기에 너무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지금껏 쌓아온 수많은 업적, 명성이 죄로 인해 모두 산산조각 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수치를 그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음주운전, 도박, 성폭행 등으로 한순간에 추락하는 수많은 연예인들을 보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죄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어려운 반면 죄를 지었을 때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점점 커진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 대가를 옳게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죽음은 모든 것을 책임지지 못한다. 우리는 그의 업적을 마땅히 인정해 주어야 하나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비판해야 한다. 다른 이슈를 통해 죄를 덮고 무마하려 하는 모습은 절대 보여줘서 안 되는 행동이다. 그것은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일 것이다. 죄를 덮으려하기보다는 책임지려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죄를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모든 일은 양면성을 가진다.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우리도 이 사건의 양면성을 보아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은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 명의 위대한 리더를 끔찍한 죄 앞에서 떠나 보냈으니 말이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죄로부터 자유롭거나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정주용 기자

개화

슬픈 숙명을 받아들이며 한 걸음 더 가본다
하늘을 사랑하지 말거라,
너무 힘들 터이니 견디지 못할까 하면서도
한 아이의 꿈을 저버리는 것은 너무도 비겁하구나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 볼까
두려움을 뒤로하고 다시 사랑해볼까
막연한 꿈 하나면 그대들이 알아주실까

사위는 어둠으로 물들고 이 자리에
홀로 알 수 없는 내일을 기다리며
작게나마 펜을 또 잡아본다

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불안한 앞 길을 보며 피 흘리는 것

Jusohappy
2020년 11월 28일 00시